

일회용 및 다회용 생리대의 소비자 사용 평가

Analysis on User Sensitive Evaluations of Disposable and Reusable Sanitary Pads

문지현 · 전은경†

Jeehyun Moon · Eunkyung Jeon†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 전공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University of Ulsan, Korea

Abstract

Menstruation being an inevitable phenomenon for every women, reducing the discomfort during the menstruation period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for women's well-be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user evaluations on disposable pads and reusable pads to comprehend the discomfort factors of the sanitary pads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improvement. Negative symptoms of the responses on menstruation outnumbered the positive aspects, and the results suggested that menstruation period was perceived as a painful experience to women. There were difference between the negative and positive responses regarding the designs, functions, fittings, wearing sensations, and disposabilities of disposable pads and reusable pads. While disposable pads had the strength of convenient use, it had the weakness of wearing sensation, and while reusable pads had the strength of wearing sensation, it had the weakness of inconvenient keeping. When designs reflecting these results are made, it is expected to bring a synergy effect by bringing both a more pleasant menstruation period for the consumers and eventual profit to the manufacturers.

Key words: Menstruation, Sanitary pads, Disposable pads, Reusable pads, User Evaluation

요약

월경은 모든 여성에게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 기간에 이르는 불편의 경감은 여성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회용과 다회용 패드 생리대의 소비자 사용평가를 통하여 생리대 사용에 따른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월경에 대한 응답자의 증상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우세하여 생리기간이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일회용 생리대와 다회용 생리대의 디자인, 성능, 맞춤새, 사용감, 관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스왓분석을 통해 일회용 생리대는 사용 편리성이 강점인 반면, 착용감이 약점으로, 다회용 생리대는 착용감이 강점인 반면, 관리 불편이 약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감성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는 보다 쾌적한 생리 기간을 영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생산업체에 수익을 가져오는 상승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생리, 생리대, 일회용 패드, 다회용 패드, 사용자 감성 평가

※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 연구비(2010-0086)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전은경(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E-mail : ekjeon@ulsan.ac.kr

TEL : 052-259-2842

FAX : 052-259-2888

1. 서론

생리대는 위생상의 용도로 제공되는 의약부외품으로 고시된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민감한 부위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 선택에 예민한 편이지만 마트나 편의점 등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 국가가 안전성을 관리하는 의약부외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Learning about quasi-drugs", 2011). 1971년 생리대가 의약부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2005년까지 단 한번도 '수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생리대의 안전에 대해 미국 FDA가 염소성분 불검출 등 각종 피부 부작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Serious problems in safety management", 2005).

신체적, 정신적, 성적 변화를 경험하는 월경은 임신, 출산 등, 생식능력을 상징하여 여성의 특권이라는 긍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반생에 이르는 동안 주기적으로 겪는 불편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다. 월경증상은 다양한 신체현상을 수반하는 데, 이와 함께 겪는 여러 가지 불편으로 인한 심리 요인이 신체적 불편감의 강도와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 세계 여성이 사용하는 생리대는 보다 쾌적한 생리기간 영위를 목적으로 다양한 규격과 형태의 제품으로 생산, 시판되고 있다. 생리대는 재사용 여부에 따라 일회용 생리대와 다회용(대안) 생리대로 구분되나 편리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여성이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다. 국내 일회용 생리대 시장은 연 3000억대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Far ahead in sanitary pads market", 2011) 막대한 규모이나 여전히 일회용 생리대가 착용 시 불편감이나 피부 트러블을 야기하기도 하며(Jeon & Moon, 2010), 환경의 폐해가 심각하여 언론의 질타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품인 대안(다회용, 재사용)생리대는 보관, 교환 등, 불편함을 이유로 일반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Women in their 20s and 30s", 2011). 생리대는 신체의 은밀한 곳에 직접 닿아 여성의 감성을 자극하고, 사용 기간 내내 심리적, 생리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단지 물리적인 품질 개선만으로는 여성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없다.

월경증상의 상당부분이 심리적, 감성적 요인에 기인

하는 것이라면 생리대의 규격, 맞춤새, 성능 등에서 기능적 개선을 뛰어 넘어, 여성의 몸과 마음의 이해로부터 출발한 감성적인 패키지 디자인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생리대에 관한 연구는 Kang (2002), Nam(1987) 등, 소재 개발에 국한되어 소비자의 감성과 니즈를 파악한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구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반생애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생리적 불편감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사용자 중심의 생리대 설계를 최종 목적으로 패드형 일회용 생리대와 다회용(대안) 생리대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생리대 사용 시 긍정적, 부정적 평가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쾌적한 제품개발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생리대의 사용 평가는 질적 평가연구(Cho et al., 2009) 및 선행연구(Jeon & Moon, 2010)를 참고하여 설문과 인터뷰를 병행,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착용감의 차이를 고려하여 2011년 6월에서 2013년 7월까지 전 계절을 포함하였다. 조사내용은 소비자의 생리대 사용평가 및 월경에 관한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특성이다. 조사대상은 연구 일 현재 생리현상이 있는 서울, 울산,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13~43세에 이르는 학생, 주부, 직장인(Table 1) 60명으로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참여를 희망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자의 생리량 및 사용빈도에 따라 일회용 패드생리대 7~12개, 다회용 패드생리대 3~7개의 제품을 각각 제공하였다. 제공된 제품은 3개 대형마트와 8개 인터넷쇼핑몰을 검색하여 판매되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 77개 종류, 대안생리대 47개 종류 등 총 124개 제품이다(Table 2).

대상자가 사용하는 생리대의 브랜드 및 규격을 확인하고 사용, 또는 희망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이와 차별화되는 규격 및 브랜드 제품을 함께 제공하여 가급적 모든 종류의 고른 사용을 의도하였다. 그러나 생리대 사용은 개인의 선호특성이 강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사용자가 원치 않는 생리대의 공급을 배제하였으며 조사 중에도 평가를 중단하거나 결과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 이를 분석에서 배제하여 총 36명의 평가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lass	Number
Age	10s`	9
	20s`	12
	30s`	8
	40s`	7
	Total	36
Menstrual cycle	20~23	3
	24~25	2
	26~27	4
	28~30	22
	32~34	1
	Irregular	4
Total	36	
Menstrual period	2~3	2
	4~5	19
	6~7	14
	8~	1
	Total	36
Job	Employed	16
	Unemployed	6
	Students	14
	Total	36

설문조사에서는 생리대 사용 중 포장, 개봉에서 착용, 관리(폐기, 보관, 세탁)의 전 과정 동안 느낀 디자인, 성능, 맞음새, 사용감, 후 처리의 5개 영역에 관한 평가를 자유기술식으로 적게 하였으며, 생리대 사용 후 설문 응답내용을 중심으로 만족, 불만족 사항 및 개선사항에 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가급적 응답자의 표현 그대로 서술하고자 하였으며 부적절한 용어의 수정, 용어 표준화 정도에 국한하였다. 소비자 사용 평가에 근거하여 생리대의 품질 향

상을 위한 SWOT 분석을 제시하였다.

3. 결과

3-1. 소비자의 월경관련 심리적, 신체적 특성

소비자의 생리대 사용평가와 함께, 월경에 관한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특징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4명을 제외하고 모두 규칙적으로 월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월경기간은 4~7일로 4, 5일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20~34일의 주기를 보이며, 28~30일의 월경 주기가 가장 많았고, 연령대에 따른 특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 달 생리대 사용량은 약 12~30개이며 월경기간과는 관계없이 생리량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생리대의 사용갯수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월경에 관한 견해 및 월경 증상을 조사한 결과, 월경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여성, 모성으로서의 축복, 권리, 자긍심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선택이 아닌 필연, 불편함과 부자유스러움, 컨디션 저하 등의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경 증상은 부정적인 답변만 있어, 월경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주로 여성으로서의 긍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부정적인 견해는 월경이 주는 불편함에서 기인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때 월경을 보다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여성의 감성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

Table 2. Specifications of Investigated Sanitary Products

Sanitary pad	Enterprise	Type		Size						
		With wings	Without wings	P	S	M	L	O	UO	Total
Disposable	Yuhan Kimberly	○	○	3	5	5	4	4	-	21
	P&G	○	○	3	4	3	3	3	1	17
	ILDONG	○	○	2	1	2	1	1	-	7
	Welcronhealthcare	○	○	2	1	1	1	1	-	6
	Kleannara	○	○	1	3	3	3	1	-	11
	LG	○	○	2	3	3	3	3	1	15
Total				13	17	17	15	13	2	77
Reusable	Eechae	○		1	2	2	2	2	2	11
	Ipsae	○		1	2	2	2	2	2	11
	Hannahpad	○		1	1	1	-	1	1	5
	Gnaran	○		1	2	2	2	1	1	9
	Lohan	○		1	2	2	2	2	2	11
Total				5	9	9	8	8	8	47

* P: Panty liners, S: Small, M: Medium, L: Large, O: Overnight, UO: Ultra-overnight in size

된다 하겠다.

-월경에 관한 인식-

- 여자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 생각한다.
- 여성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다.
- 출산가능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다.
- 엄마가 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 여자라서 생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속상하다.
- 아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생리가 없었으면 한다.
- 활동에 제약이 있고 불편해서 싫다.
- 여름에 속옷을 더 입어야 해서 싫다.
- 한 달 중 거의 보름은 정상컨디션이 아니며 업무에도 지장을 준다.
- 빨리 끝나거나 거를 경우 몸은 편하지만 불안하다.

-월경증상-

- 짜증이 심해지고 신경질적이 된다.
- 모든 일에 의욕이 없고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 그 래서인지 잠이 많이 온다.
- 생리기간 내내 쉴까봐 불안하고 신경이 쓰인다.
- 평소보다 피곤하고 약한 미열과 함께 가벼운 감기 증상처럼 시작한다.
- 배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
- 편두통, 매스꺼움과 입이 마르는 증상을 느낀다.
- 평소에 비해 식탐이 늘어 많이 먹게 되고 더부룩하다.
- 배에 가스가 차서 배가 똥똥한 느낌이 오고 소화불 량, 식욕감퇴 현상이 있다.
- 가슴이 커지고 아파서 약간만 스쳐도 고통스럽다.
- 밀이 빠지는 느낌이다.

3-2. 생리대의 사용평가 분석

시판 일회용 및 다회용 패드생리대의 사용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인 느낌을 자유 응답식 설문지와 대면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Table 3과 같이 디자인, 성능, 맞춤새, 착용감, 후처리 등 5가지 특성에 따라 자유응답식으로 기술하게 한 후, 조사자와 응답자가 설문지를 함께 검토하고 평가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활동량이 크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 30대에서는 생리대 관련 모든 항목에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아직 생리대 사용이 익숙지 않은 10대의 경우, 성능보다는 디자인과 맞춤새에, 폐경을 앞둔 40대는 맞춤새나 착용감 보다는 제품성능이나 포장에 더 큰 관심을 나타냈다.

3-2-1. 일회용 생리대의 사용평가

일회용 생리대 사용에 따른 소비자 평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디자인에서는 생리대처럼 여겨지지 않는 모양과 개봉하기 쉬운 디자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생리대임을 감지할 수 있는 소리나 포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성능에서는 흡수성과 흡수 후 형태보존에 관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빠른 흡수와 흡수 후에도 건조한 느낌에 긍정적인 평가를, 흡수 불량, 흡수 후 생리대가 변화, 변형되면서 갖는 불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 연령대에서 길이, 너비, 두께 등의 사이즈 관련 평가가 있었으며 인체 부위, 속옷과 잘 맞고 고정될 때 긍정적인 평가를, 잘 맞지 않거나 고정되지 못한 경우 부정적인 평가를, 특히 과도한 크기로 모양이 드러나거나 활동이 부자유스러울 때 강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생리대의

Table 3. Use evaluation of sanitary pads

Characteristics	Details	Age group			
		10	20	30	40
Design	Shape, pattern	○	○	○	○
	Packing	○	○	○	○
	Unwrapping	○	○	○	○
Performance	Absorption capability	○	○	○	
	Durability in shape, Efficiency		○	○	
Fit	Size problems	○	○	○	○
	Fit sense on human body	○	○	○	
Wearing sensation	Stability, comfortability	○	○	○	
	Odor	○	○	○	○
	Surface texture	○	○	○	○
After use	Storage and discard after use, Wrapping	○	○	○	○
	Washing, drying	○	○	○	○

특성상, 형태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없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음새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인체의 곡선을 살린 입체적인 생리대의 설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용감은 소비자의 생리대 선택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감성 항목으로 월경에 대한 편안함과 불편함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응답자 중 상당수가 일회용 생리대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경험했는데, 응답자의 60%가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피부질환,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한 설문결과 (“Serious problems in safety management”, 2005)와도 일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생리대 고정력과 향에 관한 의견은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였으며 특히 한방 생리대에 대해 10대는 부정적, 40대는 긍정적 의견을 표현하여 소비자 특성에 따른 생리대의 감성적 설계가 요구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생리대의 폐기에 관한 의견은 전 연령층에서 폐기 시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깔끔한 폐기 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그렇지 못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보여 생리대 설계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안임을 알 수 있다.

- 디자인 -

- 포장 디자인이 생리대 같지 않고 예쁘다.
- 포장이 한 번에 잘 뜯어져 좋다.
- 리본 무늬가 참신하고 귀엽다.
- 원터치로 포장이 분리되어 편리하다.
- 비닐포장을 만지면 바스락 소리가 나서 창피하다.
- 생리대속이 흰히 비치는 포장이 눈에 거슬린다.
- 부직포로 포장되어 먼지가 스며들까 걱정된다.
- 포장지가 한 번에 분리되지 않고 날개의 스티커를 일일이 떼어내는 일이 번거롭다.
- 포장을 벗길 때 날개가 몸판의 접착테이프와 붙어 버려 못쓰게 되기도 한다.

- 성능 -

- 분비물이 바로 흡수되어 보송보송하다.
- 흡수가 잘 되서 표면에 묻어나지 않는다. 착용하는 동안 새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 착용 내내 흡수가 잘 안되어 축축하고 째졌다.
- 처음 질감은 좋으나 분비물 흡수 후 생리대가 딱딱해져 질감이 너무 나쁘다.
- 분비물이 넓게 퍼지지 못하고 밑에까지 젖어버려 자주 교환하는 것이 아깝다.

- 생리대가 젖으면 생리대가 갈라진다.
- 생리대가 젖게 되면 무거워 아래로 처진다.
- 날개접착이 떨어져 구겨지거나 생리대가 움직인다.
- 접착력이 너무 강해 속옷에서 떼어낼 때 생리대가 찢어진다.

- 맞음새 -

- 생리대 뒤 부분이 넓어 착용감이 편안하다.
- 중간이 블록해서 몸에 편안하게 맞아진다.
- 둥글고 넓은 날개가 속옷과 잘 맞아 잘 고정된다.
- 스티커가 넓어 착용하는 동안 잘 고정되어 있다.
- 얇아서 속옷에 잘 고정되고 심지어 생리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 생리대가 너무 커서 다리가 벌어진다. 걸을 때 스쳐서 엉겨주춤한 모습이 창피하다.
- 생리대가 길고 두꺼워 기저귀를 찬 느낌이다.
- 생리대가 두꺼워 밖으로 들어날 것 같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스커트를 입는다.
- 생리대가 너무 짧아 셀카봐 불안하다.
- 생리대마다 폭이 너무 달라 어떤 속옷을 입어야 맞을지 헷갈린다. 사이즈의 통일될 필요가 있다.
- 생리대가 너무 납작하고 입체감이 없어 몸에 밀착되지 않고 걸돈다.
- 날개가 길이방향으로 너무 길어 날개를 접었을 때 생리대가 구겨진다.
- 속옷과 날개가 맞지 않아 생리대가 움직인다.

- 사용감 -

- 면 같이 부드러운 느낌이 편안하다.
- 한방 냄새가 분비물의 냄새를 감춰주는 것 같아 좋다.
- 좋은 냄새가 생리 냄새를 느끼지 않게 해준다.
- 한방 첨가제가 들어있는 생리대는 사용 중 냄새가 변해 더 역겹다.
- 남들이 느낄 냄새 때문에 예민해지고 불편하다.
- 표면이 부드럽고 매끄럽지만 화학적인 느낌이 나서 오히려 거부감이 든다.
- 생리대가 움직여서 거들을 입어야 하니 배가 조이고 불편하다.
- 생리대에 닿는 부분이 가렵고 별게진다.
- 생리대에 쓸려 쓰라리다.
- 젖은 생리대로 인해 피부발진이 나거나 짓무른다.
- 생리대의 젖은 느낌이 싫다. 착용 후 점차 기분까지

지 불쾌하게 한다.

- 후 처리 -

- 떼어 낼 때 속옷과 분리가 잘 되어 좋다.
- 버리려고 생리대를 맡았을 때 풀리지 않아 깔끔하게 처리된다.
- 버리려고 생리대를 맡았을 때 접촉되지 않고 자꾸 펼쳐져 내용물이 보인다.
- 생리대를 떼어낸 후에도 속옷에 남아 있는 접촉성 분 때문에 몸에 들러붙어 불쾌하다.

3-2-2. 다회용 생리대의 사용자 평가

조사 대상자 중에는 다회용 생리대를 사용해 온 여성도 있었으나 대부분 처음 접하는 경우로 거부감을 표현하며 다회용 생리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줄이려는 경향이 있었다. 사용 후 다회용 생리대의 장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후 처리에 대한 불편함의 지적도 많았다. 디자인에 호감과 신기함의 반응이, 제품성능에 있어서는 흡수성과 쾌적한 표면 유지가 가장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났으며, 반면 흡수량의 부족으로 새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회용 생리대에 비해 유연한 소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단추로 고정되는 부분의 두께감과 불편함을 표현하였다.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방수원단, 스냅으로 인한 불편감은 개선되어야 할 사용감성의 평가항목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보관 및 세탁, 건조에 따른 불편함 등 후처리 과정의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여 다회용 생리대의 보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회용 생리대에서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인체에 편안한 착용감과 더불어 피부 트러블 완화, 환경보호에 대한 참여이며 단순한 디자인 및 구성에서 오는 맞음새의 문제와 부족한 흡수성능, 특히 후처리과정의 번거로움이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 디자인 -

- 디자인이 정말 귀엽다 생리대보다는 인형 옷을 입는 것 같다.
- 같은 제품이라도 아기자기한 여러 원단으로 되어 있어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어 좋다.

- 성능 -

- 분비물을 정말 잘 흡수한다.
- 흡수한 후에도 표면질감이 보송보송하니 정말 쾌적하다.
- 흡수층이 얇아 방수원단 위로 생리가 샌다.
- 스냅 단추 부분이 약해서 쉽게 손상된다.

- 맞음새 -

- 인체에 잘 달라붙어 밀리거나 흔들림이 없다.
- 천이라 그런지 속옷 모양대로 안정감이 있어 편안하다.
- 속옷을 입은 듯 몸에 맞고 편안하다.
- 일반생리대와 사이즈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작다. 중형이 소형, 대형이 중형, 오버나이트가 대형 같은 느낌? 사이즈별로 사용해봤는데 100퍼센트 다 샀다.
- 속옷에 비해 폭이 좁아 속옷이 접히고 불편하다.
- 접힌 날개로 인해 필요 없는 입체감이 생기고 두꺼워진다.

- 사용감 -

- 일회용 생리대에서 느꼈던 가려움이나 짓무름같은 피부 트러블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신기하다.
- 축축하지 않고 표면이 보송보송해서 잠을 잘 잘 수 있어서 정말 좋다.
- 지금까지 알고 있던 냄새와는 다른 냄새가 난다.
- 분비물 흡수 시 원단에 넓게 퍼져 활동할 때 몸에 묻을까 겁이 난다.
- 원단이 얇고 분비물이 원단에 빨리 퍼져 일회용 생리대 보다 자주 갈아야 한다.
- 원단 안으로 방수원단에 분비물이 고여 있는 게 보여 지저분해 보인다.
- 방수원단 때문에 통기성이 나쁘고 땀이 찬다.
- 패드 안에 있는 방수원단으로 인해 움직일 때 바스락 소리가 난다
- 앉았을 때 날개의 스냅부분이 배기고 아프다.

- 후 처리 -

- 버리지 않아 참 좋다. 비용이 절감될뿐더러 환경보호에 관한 자긍심이 생긴다.
- 밖에서 생리대를 교체한 후 지니고 다니는 일이 너무 번거롭고 거북하다.

- 사용한 생리대를 쓰는 동안 손에 분비물이 묻는다.
- 24시간을 담가 놓아도 자국이 깨끗이 빠지지 않는다.
- 방수비닐 때문에 삶을 수 없어 오히려 위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 자국을 없애느라 세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래도 친환경이 맞나하는 생각이 든다.
- 생리대 사이의 방수비닐 때문에 통 마르지 않는다.
- 세탁 후 보풀이 생기고 줄어들었다.
- 세탁할수록 남아져 사용감이 떨어진다.

3-3. 생리대의 품질 향상을 위한 SWOT 분석

소비자 사용평가에 근거하여 생리대의 품질 향상을 위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Figure 4, 5). 일회용 생리대의 강점은 저렴한 가격, 다양한 제품, 사용의 편리성을, 약점으로는 제품의 이질감 및 피부자극, 환경오염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다회용 생리대보다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기회요인이 있으나, 위협요인은 환경오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의 환경오염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다회용 생리대의 강점은 일회용 생리대보다 인체에 적합해 착용감이 좋고 인체 트러블을 줄일 수 있으나, 비싼 초기 구입비용과 교체 및 관리가 불편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소비자의 인식변화와 친환경 정책이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사회활동에 제약이 되는 제품 특성과 생리대의 의약부외품 제정 이후 대부분의 영세 업체들이 그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등 여러 위협요인들에 부딪히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는 친환경 소재 사용, 사용자 인체를 고려한 사이즈 규격 등, 보다 사용자 중심의 감성적 개발을, 다회용 생리대는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의 합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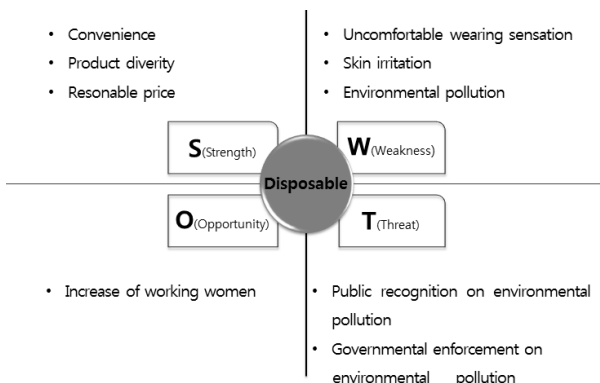


Figure 4. SWOT analysis on disposable sanitary pad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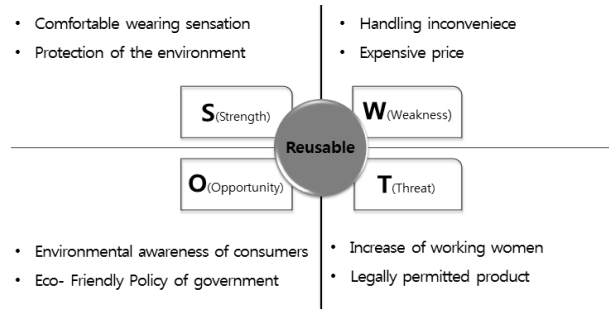


Figure 5. SWOT analysis on multi-use sanitary pad market

화, 불편한 관리 방법 개선과 함께 집에서 사용 용도로 용도를 제한하여 보다 편안함과 환경 측면에 목표를 두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3. 결론

여성의 반생애 동안 불편함으로 인식되는 생리기간에 그 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와 대책은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소비자의 손상된 감성을 치유하고 그들의 니즈를 반영한 생리대 개발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회용과 다회용 생리대에 대한 실 사용자의 사용평가에 따른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는 월경관련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하였으며 대상자 모두 부정적인 월경증상을 토로하여 여성들의 신체 증상과 감성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둘째, 소비자의 생리대 사용평가 분석결과, 일회용 생리대의 경우, 사용 편리성과 선택의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 표면의 이물감이나 피부 트러블, 인체와의 적합성 결여 및 사이즈 불일치, 개봉 시의 소리, 첨가물 냄새,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반면 다회용 생리대는 쾌적한 접촉 감각, 피부트러블 완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 인체와의 편안한 맞음새, 환경 보호에 대한 자긍심, 반복 착용으로 인한 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반면, 생리대의 교환, 보관, 세탁 및 건조 등 관리에서는 강한 부정적 평가를 하였으며 초기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 흡수 용량 부족 등을 지적하여 일회용과 상이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소비자 평가를 통한 각 생리대 시장의 SWOT 분석에서 일회용 및 다회용 패드 생리대의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 위협

요인을 살펴보고 사용자 중심의 생리대 개발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회용 및 다회용 패드 생리대의 평가 내용을 파악하여 사용자 입장에서의 생리대 개발을 위한 기초 정보로 사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획득된 자료의 가공보다는 정보 그대로를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다. 생리대는 소비자의 기호가 강하게 작용하는 제품으로 불특정 소비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특성에 따른 평가 분석이 후속되어야 한다. 특히 생리를 시작하는 10대와 폐경을 앞둔 40대는 신체 크기와 조건, 생리대 사용감성이 다르므로 소비자층의 특성을 고려한 감성설계가 요구된다. 다회용 생리대의 쾌적한 인체 접촉감과 맞춤새는 큰 강점이므로 관리 방법이 개선되어 사용이 증가된다면 환경 보호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들은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생리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그들의 감성을 상처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일회용 및 다회용 패드생리대의 긍정적, 부정적 평가는 시판 생리대의 장점과 함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연구와 설계를 위한 노력은 소비자 뿐 아니라 생산자까지 모두의 상승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지구 반 인구의 반평생의 불편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니즈를 해결한 감성 설계를 위한 노력은 연구자 뿐 아니라 업계, 정부 차원의 융합 연구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Cho S. M., Kim H. S., & Koh A. R. (2008). A Qualitative Study on the Psychological Meanings of Wearing Female High-Heeled Sho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9), 1361-1373.
- Jeon E. K., & Moon J. H. (2010).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sposable Sanitary Pads for User-Oriented Product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1), 167-174.
- Kang. S. K. (2002). Superabsorbent polymers for diaper and hygienic band.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13(4), 431-440.
- Learning about quasi-drugs such as sanitary pads-toothpaste before usage. (2011). *Medipana news*, Retrieved

September 20, 2011,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7246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Specification of the range of quasi-drugs*. March 2010 (2010-46). Seoul: Author.

Nam. S, W. (1988). A study on the amount of formaldehyde and the consumer's recognizability-On the basis of disposable napkin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6(2), 15-27.

"Serious problems in safety management of disposable sanitary pads". (2005). *The Kyunghyang Shinmun*, Retrieved September 20, 20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9261152401&code=940601

Women in their 20s and 30s, lack of correct advanced knowledge in sanitary pads. (2011). *Today the economy*, Retrieved February 14, 2012,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11014120333317&ts=151355>

Yuhan-Kimberly, far ahead in sanitary pads market... the key factor of their success is?. (2011). *The Kyunghyang Shinmun*, Retrieved February 14, 20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071447031&code=920401

원고접수: 2014.04.10

수정접수: 2014.06.12

게재확정: 2014.06.18